

믿 정 실	음 진 천
-------------	-------------

# B U D D H A N A R 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전법 기도 법회  
 넷째주 일요일 11시 108 대참회 법회 (자비수참)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착한 사람  
 집착 모두 진리로 조복하고,  
 현명한 사람  
 욕구 때문에 쓸 때 없는 말 하지 않네.  
 지혜 있는 사람  
 즐거움이나 고통 찾아오면  
 이 모두를 초월한다네.

Good men, at all times, surrender in truth all attachments. The holy spend not idle words on things of desire. When pleasure or pain comes to them, the wise fell above pleasure and pain.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6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조계종 소식 :

## 美 카트리나 한인대책위, 총무원에 감사패

### “중단 구호성금에 교포들 큰 힘 얻어”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스님)이 최근 미국 뉴올리언스의 카트리나 한인피해자들을 위해 구호성금을 전달한 것과 관련 ‘카트리나 한인피해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총무원을 예방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차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한 이상호 카트리나 한인피해대책위원장은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오셔서 정성어린 구호성금과 격려를 해주셔서 절망하던 카트리나 한인 피해자들이 많은 힘을 얻었다”면서 “피해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스님은 “많이 드리지 못해 미안하지만 힘을 얻었다니 위안이 된다”고 답했다.

이상호 위원장은 이어 “카트리나 피해 규모가 너무 방대해 이제야 복구를 위한 준비가 된 상태”라면서 “적어도 기본 복구가 이뤄지기까지는 2년 정도는 더 소요될 것”이라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사회부장 지원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전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등이 배석했다.

## 방글라데시에 한국사찰 건립된다

### ‘MWT’와 한-방 친선연합회 추진



이슬람 국가 방글라데시에 8000 평 규모의 한국사찰이 건립 중에 있어 주목된다. 특히 최근 ‘ONLY 무슬림’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영향으로 불교 등 소수종교가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불교사찰 건립은 방글라데시 불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방글라데시 힝갈라 불교고아원장인 가나쥬티스님이 일부 과격 이슬람교도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부터 불교인들이 대책위를 꾸려 결집을 시작했고 치타공 힐트렉스를 중심으로 불교의 대중화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글라데시 언론의 적잖은 조명도 받고 있다.

사진설명: 방글라데시 랑가마티 치타공힐트렉스에는 한국사찰 건립이 한창이다. 사진은 올해 초 ‘강원(講院)’ 건물 공사현장의 모습. 제공=방글라데시 일보스님

방글라데시는 과거 불교국가 인도 땅으로 가장 강대했던 아쇼카왕 당시 유적이 곳곳에 산재하며 불교인구도 100만 명이 넘어 사찰 건립은 당연한 일.

사찰건립을 추진하는 단체는 연등국제불교회관 소속 ‘Middle Way Trust(이하 MWT)’와 ‘한국방글라데시친선연합회’. 이들 두 단체는 방글라데시 랑가마티 치타공 힐트렉스 ‘Technical para’에 5년 전부터 8000여 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단계적으로 강원, 선 센터, 대웅전, 요사채, 공양간, 학교 및 도서관 등의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재 조달의 어려움과 열악한 공사 시설, 변화무쌍한 현지 기후 등을 감안해 최종 낙성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찰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억 2000만원. 두 단체는 건물 건립을 위해 꾸준히 문화강좌 및 바자회를 열어왔고 현재도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장 빠른 건물 신축은 현재 공사 중인 2층 규모의 ‘강원(講院)’ 건물로 올 11월경 낙성하면 매년 중등학교 9학년 이상 학력의 스님 5명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한다. 선발된 스님들은 남방불교와 대승불교를 아우르는 교리, 선, 경전 공부는 물론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영어, 한국어, 한문 등을 교육 받는다. 한국처럼 강원공부를 정식 학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일반학교 입학에 통한 정규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MWT’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방글라데시 일보스님은 “방글라데시 사찰건립은 소수종교로 핍박받는 현지불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세계불교 활성화에 원대한 뜻을 품으셨던 원명스님의 유지를 이어 남방불교의 전통만이 아닌 대승과 소승을 아우르고, 컴퓨터 등 신문물 공부도 같이 해 불교인재를 키워내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호스님의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의 지옥

왜 희망이 열려있는 지옥이라 하는가

지옥에 가야 한다면 희망이 있는  
"불교지옥"으로 가겠습니다.



- 일정기간 지나 목은 빛 갚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어

몇년 전 서울역 앞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깨띠를 두르고 간이 확장기를 든 사람들 한 떼거리가 지하도 입구에서 연신 떠들어대고 있었다. 우리 일행을 보더니 더욱 기승을 부리며 소리 높여 외쳤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모조리 지옥에 떨어진다는 주장이었다. 그런 내용의 말을 확장기에 대고 우리 일행을 쫓아오다시피 하면서 외치고 또 외쳤다. 거의 제 정신이 아닌 듯 남의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도 떠들어대기에 한마디 응답해주었다.

“당신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사양하겠습니다.”

지리산 쌍계사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계절 따라 수많은 기화요초가 피고 지며, 지리산과 섬진강이 만들어내는 절경, 온난한 기후와 계곡의 맑은 물, 그리고 수 많은 먹거리 등등 주변환경으로만 보자면 거의 지상천국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좋은 곳에서 살더라도 함께 사는 대중 가운데 두어 사람이라도 자기주장만 일삼는다면 더 이상 경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시비분별에 떨어져 신경을 곤두 세우게 되고, 날카로운 분위기가 형성된다. 자기 양보란 없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몇 명만 있어도 대중 전체 분위기가 삭막해지기 일쑤인 것이다.

하물며 제 신앙 · 제 종교 · 제 주장은 무조건 맞고, 남의 신앙 · 남의 종교 · 남의 주장은 무조건 틀리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찌 천국이 될 수 있으랴. 남의 말은 아예 들을 생각조차 없으며 오로지 자기주장하기에만 급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는 천국이었던 곳이라도, 그 사람들이 모인 이후에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니다. 전쟁은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며, 지옥이 따로 없음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사실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매사에 순종하면 천국에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영구히 지옥에 보내버린다는 논리는 깡패집단의 논리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다. 깡패집단에서도 시키는 대로 잘 하면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차 없이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사랑과 평화를 앞세우는 종교집단이 깡패집단과 다를 바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닐까?

불교의 자비(慈悲)는 이와는 다르다. ‘자(慈)’는 어여뻐서 사랑하는 것이며, ‘비(悲)’는 가엾어서 사랑하는 것이다. 말을 잘 듣는 이는 어여뻐서 사랑하고, 말을 안 듣는 이는 가엾어서 사랑한다. 결국 말을 잘 듣는 이나 말을 안 듣는 이나 모두 사랑하는 것이 불교의 자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지옥 조차 ‘자비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 안 듣는 놈을 영구히 지옥에 처넣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업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라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 목은 빛을 갚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영구지옥이 아니라 임시지옥인 것이다. 게다가 지옥중생들을 모조리 제도하여 지옥이 텅 비기 전까지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는 서원을 세운 지장보살님이 항상 머물러 계신다. 구원자가 있는 지옥. 한 마디로 희망이 열려있는 지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염라대왕 앞에서 ‘지옥으로 가라’는 선고를 받으면, 정신 차리고 얼른 다음과 같이 외쳐야 한다.

“잠깐! 꼭 지옥으로 가야 한다면 ‘불교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쌍계사 강원 강사

## 불자로서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키지 못할까 걱정 말고 계획 철저 목표 세우고 초발심으로 정진하길...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기대에 부풀어 있고 신선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하얀 눈 위를 걷는 설레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용기도 필요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 아예 계획도 없고, 시작도 안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왕이면 용기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보시지요.

〈법화경〉에 종불구생(從佛求生)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불자란 부처님에 의해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부처님과 만남은 인생 최고의 인연이자 최고의 만남입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렸던 대장장이 춘다는 부처님과 만남을 “우담바라꽃을 얻음과 같고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의 나무토막을 만난 것과 같은 기쁨이 있다”고 찬탄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큰 이익과 행복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해의 좋은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앞서 먼저 출발을 잘해야 합니다. 출발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처음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한참을 가고 나면 큰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3조(三祖) 승찬(僧燦)스님은 〈신심명〉에서 ‘터럭같은 처음의 차이가 결국 천지(天地)의 차이로 벌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발심(發心)입니다. 사람은 뜻을 세워야 하고 수행자는 원력(願力)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일의 내용과 질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발심은 첫 출발의 힘찬 시동을 거는 일입니다.

사람마다 발심의 내용은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무조건 사랑’하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며칠 전 자식을 구하기 위해 세찬 불길 속에서 20 여분이나 버텼던 한 아버지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부모의 ‘무조건적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사랑은 기적입니다. 할 수 없는 걸 해내니까. 뜬금없이 스님이 웬 사랑타령이냐고 타박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한 해를 그 아버지처럼 내 주변의 인연들을 무조건 사랑해 보자고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적들이 주변에서 끊이지 않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심하시렵니까? 작은 것이라도 나의 행복과 주변 인연들을 위해 마음을 내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실한 것은 발심하면 못해 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가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심하고 난 다음은, 마음먹은 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진(精進)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가치는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간의 피나는 수행이 있었습니다. 운동선수가 대회에 나가 우승하기 위해서 합숙훈련도 하고 어려운 지옥훈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 그 만한 노력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더 행복해 지고 싶습니까? 정진하셔야 합니다.

발심하고 정진하는 것은 목표를 확실히 세우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수시로 뜻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은 불자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요. 또 많은 것을 성취하게 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는 2006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 남전스님 -

### 현원스님의 인도 이야기: 인도의 작은 도시 바라나시 교육법

인도에 있는 작은 도시 바라나시는 고대와 현대가 동시에 현존하면서 성스럽게 생각하는 어머니의 젖줄이라고 불리우는 갠지스강이 흐르는 힌두인들의 종교도시이며,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신 녹야원인 초전법륜지 성지가 바라나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작은 도시이지만 많은 종교인들이 방문을 하고 관광지로서 빼 놓을 수 없는 곳이다.



이 작은 도시에 사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의 관심은 종교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14 년을 한 도시에서 보내면서 바라나시만의 교육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영아에서 대학까지 국립과 사립으로 나뉘어지는 학교교육은 중산층 이상이면 거의 영어학교에 보내는데 대부분이 사립이므로 입학의 자격요건이 치열하고 편법도 서슴치 않고 쓰는 돈 많은 부모들의 역성이 대단하다. 대학도 입학시험이 있는데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졸업도 너무나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외국인에 대한 특혜는 서류심사로 통과하는 과정이 거의 6 개월의 시간이 걸리지만 길면 1 년 아니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학 허가서를 받으려면 학교에 매일 출근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쥐어주면 효력이 금방 나타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지만 차분하게 인내력이 요구되는 행정처리는 인도 전역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입학조건이 주어지면 이것으로 안심을 하면 안되고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를 해도 인도학생하고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독특한 수업방식이다.

바라나시는 대학이 서너 군데 있지만 범어(Sanskrit)대학에 입학하여 10 여 년 넘는 세월을 고대종교문학을 전공하며 범어라는 언어와 씨름을 하며 보내는 동안 몇 번의 갈등을 했는지 나 자신도 모른 채, 보면 볼수록 매료되는 학문이 더러 위안이 되면서 최선을 다한 공부이기에 지금도 후회라는 단어는 떠올려 본적이 없다는 게 의아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 번도 못한다라는 말보다 잘한다라는 칭찬으로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위안으로 다가오면서 영어 한마디 못하고 힌디어나 범어 한자 모르고 그리기 수준으로 무작정 수업에 들어가 귀머거리, 병어리 시간을 몇 달을 보내면서 한자씩 익혀나가는 나에게 쩡그리지 않고 가르쳐 주던 호기심 많은 같은 반 인도 학생들의 열성적인 가르침은 언제나 고마움으로 마음 한 켠에 남아 있다. 그러나 힘든 수업방식은 적응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단 한자도 칠판에 쓰지 않고 강의하는 내용을 모두 받아 적는 학생들의 손놀림이 경지에 올라선 느낌을 받은 기분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기만 한 방식이 고도에 이른다. 책도 가져오지 않고 노트와 필기도구만 가져와서 그 많은 내용을 한자도 빼지 않고 받아 적으면서 한 시간의 강의를 족히 열 장이 넘는 분량을 다 적는다.

모든 강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나는 일년이나 되는 시간을 테이프에 녹음을 하여 반복 청취를 해가며 거북이 같은 느림보 걸음으로 따라 가는 힘겨움이 영어, 힌디어, 범어 세 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소화 해 나가야하는 나날이 수업의 연장이고 긴장은 언제나 함께 하면서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공부하던 그 때가 내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치열함이 용기를 갖게 해 주었던 것 같다.

---

## 수행 초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중생은 본래 부처’ 확신이 더 중요

**Q:** 수행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가짐인가요,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인가요.

**A:**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도 수행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도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임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성취한 직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 기특하도다.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지혜와 덕상(德相)을 갖추었건만, 오로지 망상에 집착 되어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는 구나. 망상의 집착만 여윈다면 바로 일체지(一切智).자연지(自然智)를 얻을 것을!” 이처럼 부처님이 깨달은 직후 처음 하신 말씀이 ‘일체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시작이고,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중생들이 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님은 45 년간 길에서 자고 먹으며, 갖가지 방편으로 설법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착각에 의해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부처 자리’에서 벗어나고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착각에 의해 우리가 부처임을 모르고 있다 해도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화경> ‘오백수기품’에 나오는 ‘의주(衣珠)의 비유’는 이와 관련해 주목됩니다.

친구 집을 방문한 어떤 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이 때 친구는 나랏 일로 잠든 친구를 남겨둔 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친구가 깨어나면 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아주 값비싼 보석을 잠자는 친구의 옷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 사람은 옷 속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렁뱅이 생활을 하고, 유랑하며 고생만 실컷 했습니다. 그러다 먼 훗날, 보석을 옷 속에 넣어주고 떠난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보석을 넣어준 친구는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고 고생하며 유랑한 그 사람에게 옷 속의 보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보석이 지금도 있거늘 알아보지 못하고 고생만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며 “지금이라도 보배를 꺼내 팔면 어떤 것이든지 다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술 취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옷 속에 보배가 들어있는 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밖으로만 헤맨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겐 ‘본래 보배’가 옷 속에 있습니다. ‘본래 보배’는 바로 ‘본래 부처’를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본래 부처’인데, 그것도 모르고 헤매는 사람처럼 행동해서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본래 장자(長子)의 아들임을 모르고 있다 나중에 알게 된다는 <법화경> ‘신해품’에 나오는 ‘장자궁자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착각에 의해 부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마당에 놓인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한다 해도, 새끼줄은 뱀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래 부처인 그 원리는 궁자(窮子)가 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나’의 착각을 깨고 ‘본래 부처’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부처’라는 사실! 이제 능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부처’임을 확신하는 것이 수행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법회소식 NEWS

- 성도제일을 맞이하여 금년에도 많은 불자님들이 철야 참선 정진 법회에 동참하셔서, 깨달음의 의미와 자신들의 불성을 찾는 좋은 시간들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철야 정진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
- 불국사에서는 현재 부처님 오신날 연등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단계로 연잎을 비비는 작업을 2월 부터 3월까지 약 두 달간 합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께서는 불국사 총무님께 연락주십시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1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66번 이상기 영가, 202번 보덕행 김경자, 203번 계축생 황유식, 248번 행효녀 정노미 복위 망 시모 모씨 영가, 249번 수자 영가, 298번 기축생 홍성표, 299번 갑오생 임남, 300번 신유생 홍문화, 301번 기미생 홍희경, 302번 계해생 홍선희, 303번 계묘생 정영균, 304번 경인생 이봉호 (Bongho Lee), 305번 임진생 성장각 이정은 (Cathy J. E. Lee), 306번 신유생 이영아 (Carol Youngha Lee), 307번 기사생 이윤선 (Nancy Yoonsun Lee).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한 평 불사 동참자 : 이병구, 이수경 (이형준, 이형구, 이주연)

- 부다나라 템플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